

1. 서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서울에서 발견되었다.
- ② 삼국 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지배하였다.
- ③ 고려 3경 중 하나로 분사 제도가 실시되었다.
- ④ 풍수 사상인 남경 길지설이 유행하였고 경강 상인들이 활동하였다.
- 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거리가 만들어진 곳이다.

정답: ③

* 서울의 역사

- 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으로,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에 자리잡고 있다.
- ② 백제는 한강 하류 유역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되었는데(기원전 18), 현재의 서울시 송파구(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삼았다. 이후 고구려가 장수왕 때인 475년 점령(백제 개로왕)하여, 551년 백제(성왕, 한강 하류 공격)와 신라(진흥왕 한강 상류 공격)의 점령 때까지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이후 신라가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하여 빼앗고, 554년 관산성 승리로 전 한강 지역을 단독 지배하게 되었다.
- ③, ④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평양)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분사 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서울) 명당설이 대두하여 이 곳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경강 상인은 대표적인 선상으로서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 ⑤ 1930년 무렵 서울에는 10만여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 이들 일본인은 본정(현 충무로), 명치정(현 명동), 황금정(현 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리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청계천을 경계로 남쪽의 일본인 거리는 남촌, 북쪽의 한국인 거리는 북촌으로 불렸다. 당시 남촌의 거리는 서울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로서 관공서, 은행, 백화점, 상가, 도로 포장, 신호등, 가로등, 네온등 등 근대 도시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북촌의 거리는 그렇지 못하였다.

2. 대한제국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새로 축조된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 ㉡ 왕의 위상을 황제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관료와 유생들 사이에 비등하였다.
- ㉢ ‘구본신참’의 국가 통치 이념 아래 교전소를 설치하여 개혁 작업에 나섰다.
- ㉣ 황제권을 제약할 수 있는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 사법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④ ㄴㄷㄹㄹ

⑤ ㄱㄴㄷㄹㄹ

정답: ⑤

* 대한제국과 광무개혁(1897~1904)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관료와 유생들 사이에 커져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20).

이어 3월에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향후 정국을 국왕 중심의 구도로 재편하고자 교전소(校典所)를 설치하여 개혁에 나섰으나, 의회를 설치하여 군주권을 제한하려는 서재필·박정양 등의 소장개화파들이 교전소를 주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4월 말 이후 교전소는 유야무야 되었다.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8.16)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10.12)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하였다(10.13). 대한 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자 1899년 황제 직속의 법규교정소를 통하여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8.17)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의회·국민참정권·사법권 규정 전무).

대한 제국은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

런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식산흥업:殖産興業)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광무개혁은 짧은 기간에 산업과 교육, 근대적 시설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치면에서는 전제 군주제를 강화하며 근대적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독립 협회를 탄압하고 민권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나타냈으며, 열강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3. 다음은 고려 시대 역사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해동고승전> - 각훈이 편찬한 것으로 교종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 ② <삼국사기> - 김부식이 저술한 편년체역사서이다.
- ③ <삼국유사> -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고 있다.
- ④ <제왕운기> - 김관의가 저술한 책으로 단군역사를 다루고 있다.
- ⑤ <고려사> - 고려 말에 <고려국사> 등을 참고하여 만든 역사서이다.

정답: ①

* 고려 시대 역사서들

① 무신집권기에 우리나라 불교사를 새롭게 정리하고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교종인 화엄종 승려 각훈이 고종의 명을 받아 쓴 해동고승전(1215)에는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이 책에서 각훈은 우리 나라의 불교사를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씌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을 많이 반영하였다.

③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5)는 하면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고조선에서부터 서술하고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④ 충렬왕 때에 이승휴가 사찬하여 왕에게 올린 제왕운기(1287)는 운문체로 서술한 역사시로 상(上)은 중국사, 하(下)는 한국사를 7언시, 5언시로 중국사(전설시대~원)와 본국(단군~충렬왕)의 역사를 병렬적(대등하게)으로 대비해 서술하였다. 단군 기년도 사용하였고, 단군(혈연 공동체), 기자(문화 공동체), 위만(민족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3조선설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김관의는 의종 때에 <편년통록>을 지어 왕건의 가계를 정리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⑤ 조선 태조 때(1395), 정도전 등은 37권 편년체의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15세기 중엽에 정인지 등이 139권 기전체의 고려사(1451)를, 김종서 등이 35권 편년체의 고려사절요(1452)를 편찬하였다.

4. 다음은 구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 ②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중기.후기로 그 시기를 나눌 수 있다.
- ③ 전기에는 한 개의 큰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였다.
- ④ 중기에는 썰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를 제작하였다.
- ⑤ 전기 유적지로는 상원 검은 모루, 연천 전곡리 등의 유적지가 있다.

정답: ④

*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대하여

우리 나라와 그 주변 지역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이다. 구석기 시대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전기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으나,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 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따라서, 크기는 작아지고 점차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후기에는 썰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하였다.

우리 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석기와 함께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 동물 뼈로 만든 도구 등이 출토되어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시기별 구석기 유적지와 인골 출토>

전기: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 연천 전곡리(아슐리언 주먹도끼), 단양 금굴(最古)

중기: 함북 옹기 굴포리(후), 평양 역포리(인골), 평남 덕천 승리산(인골),

충남 공주 석장리(전.중.후), 충북 단양 수양개(후), 강원 양양 상무룡리(후)

후기: 함북 옹기 부포리, 평양 만달리(인골), 제주 빌레못 동굴,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홍수아이 인골), 충북 단양 상시리(인골)

5. 다음 사건의 일어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과도입법의원 개원
- ㉡ 4.3 사건
- ㉢ 남한 단독 선거 결정
- ㉣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정답: ③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한반도의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1945.12)따라 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년 1월 예비회담, 3~5월 본회담)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 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1946.6, 정읍 발언-단독정부론 제기)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남북분단을 우려한 여운형(중도좌), 김규식(중도우) 등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좌우 합작운동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1946.10)하였고 미 군정도 이를 후원하여 1946년 12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설립되어(의장: 김규식) 형식상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위임(1947.2 미군정장관 아래 민정장관 안재홍 취임)하였으나, 1947년부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1947.3) 발표 이후 냉전이 심화되고 여운형의 암살(1947.7)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1947년 7월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9월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고(1948. 4),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948년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김구 등 일부 우익 세력과 김규식 등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주 4·3 사건과 같은 무력 항쟁이 있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 민국으로 정하고,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7.17).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이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6. 다음은 안향이 쓴 글이다. 여기서 제시된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성인의 도는 일상생활의 윤리에 불과하다. 자식은 마땅히 효도하고, 신하는 마땅히 충성하며, 예로 집안을 바로잡고, 신의로 벼슬 사귀며, 자신을 수양할 때는 반드시 경(敬)으로 해야 하고, 사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반드시 성(誠)으로 해야만 한다. 저 불교는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여 인륜을 무시하고 의리에 역행하니, 일종의 오랑캐 무리다.

- ①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한 시기에 진출한 개혁 세력의 학문적 기반이었다.
- ② 사장 중심의 유학으로,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 문제 탐구에 적극적이었다.
- ③ 이 이념을 수용한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④ 이 이념을 보급,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였다.
- ⑤ 이 이념에 근거한 역사관은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에 대하여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종래 자구의 해석에 힘쓰던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였다. 이제현은 원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하였다.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키며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였다.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은 대부분 신진 사대부였다.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유교적

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고자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후 고려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⑤ 고려

후기에는 신진 사대부의 성장 및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대두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이제현은 사략을 비롯한 여러 권의 사서를 저술하였는데, 지금은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 전한다.

7. 다음 서술된 시기의 생활로 옳은 것은?

대체로 직사각형 형태의 움집에서 생활하였으며 점차 지상 가옥화가 이루어지면서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이도 따로 설치하게 되고 움집을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 ① 조, 피, 콩, 수수 등의 밭농사 중심이었고, 일부 습지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 ② 연장자가 집단의 지도자였으므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다.
 - ③ 대표적인 유물로는 잔석기기를 들 수 있으며, 이음도구가 제작되었다.
 - ④ 예술 작품으로 흙으로 빚은 얼굴모양이나 조개껍데기 가면 등이 있었다.
 - ⑤ 공동체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두레 조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동작업을 하였다.

정답: ①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청동기 시기의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이 시기에는 돌도끼나 흙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②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의 무리 사회와 같이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였다.

③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중석기 시대의 석기들은 더욱 작게 만들어진 잔석기로서,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었다. 이음 도구에는 톱, 활, 창, 작살 등이 있었다.

④ 신석기 시대의 예술품으로는 주로 흙을 빚어 구운 얼굴 모습이나 동물의 모양을 새긴 조각품,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가비 또는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치레걸이 등이 있었다.

⑤ 철기 시대인 삼한의 소국의 일반 사람들은 읍락에 살면서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또, 공동체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두레 조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하였다.

18.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품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였다.
- ② 송상은 인삼을 주로 취급하였으며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였다.
- ③ 18세기에 장시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되었다.

④ 보부상은 포구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⑤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을 주로 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의 상업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도 활성화되었다.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 인구의 자연 증가와 인구의 도시 유입도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 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사상의 성장은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하였다.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인근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보부상이 활약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는데,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9. 성리학적 종법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후기에는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해갔다.
- ② 17세기 이후부터 점차로 장남 우대, 남녀차별 등의 장자 상속제로 변해갔다.
- ③ 족보의 기재 방법이 출생 순위에서 아들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해갔다.
- ④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⑤ 족보 편찬은 조선 초기부터 활발해짐으로써 양반 문벌제도를 강화하였다.

정답: ⑤

* 조선 후기 성리학적 종법 질서 강화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17세기 이후)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출생 순위가 아닌 아들 위주 기재)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⑤ 조선 초기(15세기)에는 종법이 비록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정책적으로 권장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족보 편찬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초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 권씨 성화보(1476)이고 족보 간행이 활발해진 시기는 16세기 중엽 이후이다.

10. 조선시대 지방 행정 조직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 크기에 따라 지방관 등급을 조정하였다.
- ② 고려시대까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 ③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모든 군현에 수령을 임명하고, 또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기 위해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④ 기본 행정구역은 부·목·군·현으로 구획하였다. 또 군현 아래 면·리·통 을 두고 10호를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였다.
- ⑤ 암행어사를 지방에 수시로 보내기도 하고, 유향소(향청)를 운영하여 지방민 자치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정답: ④

* 조선시대 지방 행정 조직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부.목.군.현)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부에 부윤.부사, 목에 목사, 군에 군수, 현에 현령.현감),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고, 향촌 자치를 위하여 사족들은 유향소(향청)를 설치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유향소에 대비되는 경재소는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써,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한편 군, 현 아래에는 면, 리, 통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몇 개의 자연 촌락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게 한 오가작통제를 통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11. 조선 후기 이후 발생한 예송 논쟁에 관한 내용과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차 예송 당시 효종의 상을 당하여 인조의 계비(조대비)의 복제가 문제되었는데, (㉠)은 1년설을, (㉡)은 3년설을 주장하였다.

- | | |
|------------|----------|
| ① 허목, 허적 | 송시열, 송준길 |
| ② 송시열, 송준길 | 허목, 허적 |
| ③ 허목, 송시열 | 허적, 송준길 |
| ④ 송시열, 윤휴 | 윤선도, 허적 |
| ⑤ 윤선도, 송준길 | 허적, 윤휴 |

정답: ②

* 서인과 남인의 1차 예송 논쟁(1659)

인조 반정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봉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 시(기해 예송)와 1674년 효종 비의 사망 시(갑인 예송)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 때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다.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하였고,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과 1년설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12. 다음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아버지 죽어 상복을 입고, 갓난아이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건만

삼대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네.

짧은 언변으로 하소연하러 갔더니

범 같은 문지기 버티고 섰고

이정이 호통치며 마구간에서 소마저 끌고 갔다네.

- ① 군포의 징수가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경제를 크게 위협하였다.
- ② 균역법을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경감되었다.
- ③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어린이에게도 강제로 부담하게 되었다,
- ④ 비총법을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농민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 ⑤ 군포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군포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정답: ④

* 정약용의 시‘애절양’에 나타난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

• 제시된 시(詩)는 군적의 문란을 비판한 정약용이 1803년에 지은 애절양(哀絶陽: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을 슬퍼함)이라는 시이다.

• 조선 후기에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군포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군포를 부담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제 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또한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영조 이후 조선 후기의 수취 체제는 총액제에 의한 재정 운영이 일반화되어, 양역(군역)은 정총제로 전세는 비총제로, 환곡은 환총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모든 부세가 공동납 형태로 징수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정은 총액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총액징수제로 인하여 인징(隣徵)·족징(族徵)이라 하여 도피자가 10년이 넘으면 면세하게 되어 있었으나 도망자의 납세분을 친척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서 강제로 징수하고, 황구첨정이라 하여 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고 그 세금을 착복하였으며, 백골징포라 하여 만 60세가 넘었거나 사망한 자에게 징수하는 등 군역의 폐단은 그치지 않았다.

13. 19세기에 간행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매일신보

- ② 한성순보
- ③ 독립신문
- ④ 황성신문
- ⑤ 제국신문

정답: ①

* 19세기에 간행된 신문들

① 대한매일신보(1904~1910): 양기탁 등 애국지사들이 운영했으나,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고 활발한 민족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순 한글로 간행했다가 1907년부터 국한문, 영문 등 세 종류로 발행하였다. 이 신문은 당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었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과 더불어 국채 보상 운동에도 앞장섰다. 이에 통감부는 베델을 추방하고 양기탁을 구속하는 등 온갖 탄압을 가하여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의 친일기관지로 전락되었다.

② 한성순보(1883~1886): 박영효 등 개화파가 국민을 계몽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한성순보는 폐간되고, 온건 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1886).

③ 독립신문(1896~1899): 아관 파천 후 서재필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신문.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한 한글판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렸으며, 영문판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였다. 독립 협회의 기관지의 성격을 띠면서 자주독립 정신과 근대적 민권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서재필이 신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독립신문은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

④ 황성신문(1898~1910): 나수연, 남궁억 등이 설립한 신문. 국·한문 혼용체로 된 일간 신문으로 유림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1904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에 반대한 보안회를 지원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해 분노를 토하였던 장지연의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다.

⑤ 제국신문(1898~1910): 이종일이 순 한글로 간행한“제국신문”(1898~1910)은 서민층과 부녀자들 간에 독자가 많았다. 이 신문은 폐간될 때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여러 차례 정간을 당하면서도 민중 계몽과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14. 다음의 (가)~(라)에 들어 갈 내용이 적절하게 이어진 것은?

3.1 운동 이후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1920년 10월 (㉠)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 등이 연합하여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 1만여 명을 맞아 청산리에서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 를 일으켜 한국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은 군사와 행정 조직을 갖춘 3부를 재정비되었는데 이중 (㉣)는 임시 정부의 직할 부대였다.

㉠ ㉡ ㉢ ㉣

- ① 홍범도 - 북로군정서군 - 간도참변 - 참의부
- ② 박장호 - 한국독립군 - 자유시참변 - 신민부
- ③ 홍범도 - 서로군정서군 - 간도참변 - 정의부
- ④ 박장호 - 조선혁명군 - 자유시참변 - 정의부
- ⑤ 홍범도 - 북로군정서군 - 간도참변 - 신민부

정답: ①

* 192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 투쟁 전개 과정

3·1 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의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 파괴하고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서간도에서는 압록강을 넘어 수시로 서북 지역 일제 관공서를 습격하고 모군, 모집 활동을 한 박장호의 대한독립단과 이상룡 등이 세운 서로군정서, 임정 직할 오동진의 광복군총영 등이 유명하며, 이들은 1922년 대한통군부(->대한통의부)로 통합되었다.

북간도에는, 흥범도의 대한 독립군, 안무의 국민회,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연합하여 싸운 봉오동 전투와(1920.6), 이들 부대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등이 연합하여 청산리 전투(1920.10)에서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1920.10~12)을 일으켜 우리 동포를 학살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려 하였다. 이에, 독립군 부대들은 연해주의 자유시로 옮겨 갔으나, 적색군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하였다(자유시 참변, 1921). 이후 독립군은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각 단체의 통합 운동을 추진하여, 1920년대 중반 군사와 행정 조직을 갖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조직하였다. 이 가운데 참의부는 임시 정부가 직할하였다.

15.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일신라의 지방군은 9서당으로 편제하였다.
- ②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료전을 폐지하였다.
- ③ 녹읍을 지급받은 귀족들은 부역을 징발할 수 있었다.
- ④ 의상은 십문화쟁론'등을 통해 다른 종파들의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 하였다.
- ⑤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현세에서 복을 얻고자 하는 정토종이 유행하였다.③

정답: ③

* 통일 신라기의 모습

• 신라는 통일 후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중앙군의 핵심은 9서당이였다. 서당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은 물론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기도 하였다. 지방군으로는 10정을 두었는데, 9주에 1정씩 배치하고, 북쪽 국경 지대인 한주(한산주)에는 2정을 두었다.

• 통일 직후 전제왕권을 확립한 신문왕은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을 폐지하였고(689), 경덕왕 때에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이런 조치는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 통일 전후 시기를 대표하는 원효(617~686)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 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관련 저서: 십문화쟁론, 대승기신론서). 또한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정토종).

16.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갑오개혁으로 비록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신분의식은 아직 뿌리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개된 ()에 남녀노소, 지역,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함으로써, 이 운동은 서로의 차이를 뛰어 넘어 하나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① 국채 보상 운동
 - ② 물산 장려 운동
 - ③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④ ана키스트 운동
 - ⑤ 사회주의 운동

정답: ①

* 거족적 경제적 구국 운동 국채 보상 운동(1907)

1907년에는 국민 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 자립과 국권 수호를 이룩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으로 확산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이나, 비녀와 가락지 등과 같은 패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성금으로 내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② 1920년대 들어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한 기업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 대자본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③ 1920년대에는 조선 여자 교육회와 조선 교육회가 창립되어 교육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을 통해 최고 교육 기관인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민립대학 설립운동)도 일어났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④ ана키스트(무정부주의) 운동은 크게 보면 좌익으로 구분되지만, 계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자유를 궁극의 가치로 삼고 있다. 일제의 강압통치에 저항하여 자유를 옹호하는 한 수단으로 파괴, 암살 등을 필요조건으로 보고 급진적 폭력주의를 택하여 강한 항일운동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이회영, 신채호 등 민족주의자들이 심취하였고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과 흑우회의 박열, 흑색공포단의 백정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⑤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계기로 하바로프스크에서 이동휘 등에 의해 한인사회당(1918)이 결성되고, 1919년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1925년 4월 제 좌익 단체들이 화요회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조선공산당이 출범하였다.

17. 항일 의병운동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을미의병은 유생이 주도하였다.
- ② 을사늑약 때 활약한 의병으로는 민종식, 신돌석 등이 있다.
- ③ 을사늑약 직후 이인영과 허위가 주도한 서울 진공 작전이 있었다.
- ④ 고종 강제 퇴위로 의병전쟁화 현상이 나타났다.
- ⑤ 간도와 연해주에서도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정답: ③

* 항일 의병운동

일본의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은 의병 활동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 의병이었다(1895).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조치가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활빈당에 가담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의병 항쟁은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다시 일어났다(1905, 을사의병). 민종식은 충청도를 무대로 전과를 올렸으며 최익현은 전라도에서 임병찬 등의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절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월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신돌석은 평민 의병장으로서 3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 부대는 전투력이 강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였다(1907, 정미의병). 의병 부대는 유생과 농민, 해산 군인과 노동자, 소상인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였다. 이인영, 허위 등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1908).

그럼에도 의병 전쟁은 각 지역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북부 지역에서는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도하하여 국내로 진공하려는 이범윤, 안중근의 연추 의병 부대(1908.7~9)와 이에 호응하려는 삼수, 갑산 일대의 포수 출신 홍범도, 차도선 부대의 활약이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일제가 벌인 1909년의 대규모 군사 작전(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점차 약해졌다. 이에 의병 부대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18. 고종이 즉위 하고 나서 두 번 께로 일어난 사건은?

① 동학의 탄생

② 진주민란

- ③ 병자 수호 조규의 체결
- ④ 병인양요의 발생
- ⑤ 임오군란

정답: ③

* 고종 대(1863~1907)의 연대기

① 동학은 철종 때인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잔반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② 세도정치기 농민의 항거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순조 때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1811)과 철종 때 단성에서 시작되고 곧이어 진주로 파급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임술 농민 봉기(1862)이다.

③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병자 수호 조규)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④ 프랑스는 흥선 대원군의 병인 천주교 박해 때 자국의 선교사 9명의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인 양요)

⑤ 개항(1876)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 하층민 등에 의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1882).

19. 고려의 지방행정조직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성종 초에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 ① 전국을 5도(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양계(북계, 동계), 경기로 크게 구분하였다.
- ③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 ④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 ⑤ 토착세력인 향리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였다.

정답: ⑤

*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고려의 지방의 행정 조직은 성종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983, 12목 설치). 전국을 5도(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와 양계(북계, 동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⑤ 조선 시대의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20. 다음 사료와 관련 깊은 역사적 사실은?

(㉠)

-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참극을 지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집단의 사병이다.

(㉡)

-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 간에 걸쳐서 지불하되, 그 명목은 독립축하금으로 한다.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관한다
-

(㉠)

(㉡)

- ① 제 2공화국 출범 - 6.3 항쟁
- ② 제 3공화국 출범 - 3.1 구국 선언
- ③ 10월 유신 - 6.3 항쟁
- ④ 3선 개헌 실시 - 부.마 항쟁
- ⑤ 5.16 군사 정변 - 4.19혁명

정답: ㉠

* 4.19 혁명과 6.3 항쟁

• 제시된 자료 ㉠은 1960년 4.19혁명 당시 4.25 교수 시국 선언문이고, ㉡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 있는 김종필-오하라 메모(1962.11)이다.

•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1960년 8월 민주당의 장면 내각(제 2공화국)이 들어섰다.

•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